

우리나라 癌 질환의 분포

인구 8~9 만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는 인구 10만명당 연간 암발생률은 남자 140, 여자 103명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암발생률은 진단기술의 정도나 주민의 의료 이용 양상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재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대략 130~150/10만명으로 추정되며 연간 약 5~6 만명의 암환자가 새로이 발생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안윤옥

癌疾患의 分布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3 가지 종류의 통계를 작성, 분석하게 된다. 하나는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새로이 발생하는 癌 환자를 해아려 작성되는 發生率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한 순간(보통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앓고 있는 癌환자수를 파악하는 소위 時點有病率의 통계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망자중 사망원인이 癌인 경우를 가려내어 작성하는 癌사망통계다.

한편 癌이라는 병은 비교적 매우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癌에 관한 통계를 신빙성있게 만들어 내기 위하여는 수십만 내지 수백만 이상의 대단위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료가 모아져야 한다. 그리하여 각 나라 또는 각 지역별로 癌에 관한 통계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며 작성, 유지,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신빙성 있는 癌통계가 발표, 제시된 적이 없다.

이와같이 믿을만한 자료나 통계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정확한 암질환 분포를 파악할 수는 없고 단지 몇몇의 단편적이

며 산만하게 보고된 논문이나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 정리, 취합하여 그 실태를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1. 癌發生 실태

암발생에 관한 자료와 내용은 암 등록 사업을 통하여서만 얻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사부 주관으로 1980년 7월 1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과거 5년간의 사업실적에서 보면 매년 25,000~30,000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등록되어 있어 이를 전체 인구에 적용한 癌發生率은 인구 10만명당 약 50천후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인구 8~9만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는 인구 10만명당 연간 암발생률은 남자 149, 여자 103으로 보고된다. 암발생률은 진단기술의 정도나 주민의 의료이용양상에 의해 크게 달라질수 있겠으나 현재의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대략 130~150/10만명으로 추정되어 연간 5~6만명의 암환자가 새로이 발생되는 것으로 믿어 진다.

癌발생은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큰데 남자의 발생율이 여자의 그것보다도 높아 전체적으로는 약 1.2~1.4배 정도이나 20~49세군에서는 오히려 여자에서의 발생율이 더 높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암발생은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소위 기하급수적으로 암발생이 증가한다. 특히 남자에서는 40세 이후부터, 여자는 35세 이후부터 현격한 증가 양상을 보인다.

암발생 부위별로 볼 때에도 남녀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胃, 肝, 肺癌의 발생률 차가 심하다. 즉 35세 이상 인구에서 보면 胃癌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2~3배 발생률이 높고 간암, 폐암에 있어서는 무려 4~5배나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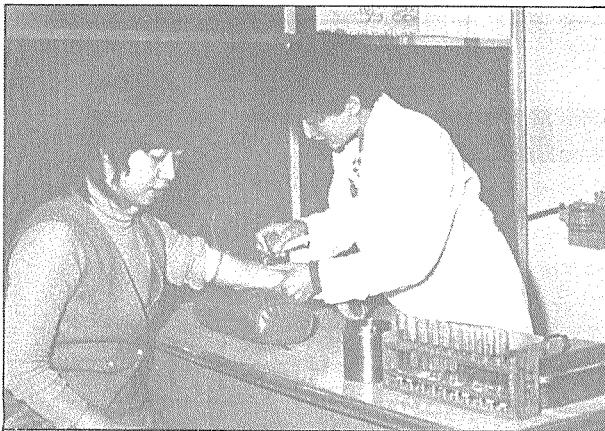
한편 암발생 양상이 연도별이나 지역적으로 적지 않은 차이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연구보고가 없다.

2. 癌部位別 相對頻度

우리나라 암환자중 가장 많은 것은 무슨 암이며 그 占有率은 몇%나 되는가 하는 내용이 곧 癌의 상대빈도이다. 새로이 발생한 癌을 부위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時點에서 앓고 있는 有病者를 구분하여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癌통계중 비교적 많이 발표, 보고되는 내용이 바로 상대빈도에 관한 것인데 發生癌을 중심으로 했든 有病癌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든지 그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表〉 한국인 원발부위별 癌의 상대빈도

순위	남 자	여 자
1	위 암 29.4%	자궁경부암 29.3%
2	간 암 15.7%	위 암 17.5%
3	폐 암 12.0%	유방암 9.3%
4	대장·직장암 5.8%	대장·직장암 5.7%
5	혈액암 4.4%	간 암 4.6%
6	방광암 2.8%	갑상선암 4.0%
7	식도암 2.7%	폐암 3.7%
8	림프종 2.5%	혈액암 3.6%
9	후두암 2.4%	난소암 2.5%
10	췌장암 2.2%	태반암 2.0%



· 우리나라 남자 암 중 가장 많은 것은 위암이고 다음이 간 암, 폐암등의 순이고, 여자의 경우는 자궁경부암, 위, 유방등의 순으로 전체 암의 2/3를 차지한다.

表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남자 癌中 가장 많은 것은 胃癌이고, 다음이 肝암, 폐암, 대장 또는 직장암, 조혈암, 방광암의 순서이며 이들이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궁경부암이 가장 많고 이후 胃, 유방, 대장 또는 직장, 간, 갑상선암의 순으로 이들 역시 전체 여성癌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癌有病 실태

어느 일정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중 얼마나 암질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아는 것은 암질환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 1979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전국적으로 약20만명 (전 국민의 약 0.53%) 정도의 암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고 특히 35세 이상 인구중에서는 100명중 1명이 암환자임을 제시하고 있다. 남녀별로 볼때 전체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병률이 높으며 남자가 연령증가와 함께 유병률도 증가함에 비해 (65세 이상 남자에서는 2

%의 유병률을 보임) 여자에서는 45~54 세군에서 가장 암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암에 의한 死亡실태

우리나라에서 일년동안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자료는 없다.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사망원인의 분류가 가능했던 사망신고례를 중심으로 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신고수가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81년 17,599명에서 1984년에는 28,862명으로 집계 발표하였다. 이러한 보고 수치가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음을 다른 관련된 보고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사망자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占有率도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현재 약 15%정도라고 믿어진다.

〈필자=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 의박〉